



유목민의 후예들

《미애와 루이, 318일간의 버스여행》 1, 2권

《미애와 루이, 318일간의 버스여행》 1, 2권 | 최미애 글 · 장 루이 볼프 사진 | 자인 | 각권 값 11,000원

남편은 프랑스인 사진 작가, 아내는 한국인 메이크업 아티스트. 불어와 한국어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9살짜리 아들 이구름, '릴라'라는 이름보다 '고릴라'라는 애칭이 더 익숙한 2살짜리 딸, 그리고 자신을 이구름 누나 정도로 생각하는 '꼬꿏'이라는 이름의 개. 구성원 면면만으로도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을 집안 같다.



이들 다국적(?) 가족이 아내의 도시인 서울에서 남편의 고향 파리까지 버스로, 그것도 중고 버스를 개조해 여행을 다녀왔다. 우리나라에서 버스를 반출해 해외 여행을 한 것은 이들 가족이 처음이다. 《미애와 루이, 318일간의 버스여행》(전 2권)은 이 다채로운 가족의 특별한, 무모함을 성공으로 이끈 모험기이다. 1권은 서울에서 파리까지, 2권은 파리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여정에 대한 이야기이다. “어느 순간 사는 게 지루해지면서 갑자기 떠나고 싶어지더군요. 당구장을 빌려 스튜디오와 살림집으로 쓸 수 있게 개조했죠. 루이가 촬영 보조하는 친구와 함께 직접 인테리어 작업을 했는데 집주인이 집을 비워달라고 하는 거예요. 차라리 버스를 사서 그곳에서 살면 적어도 집주인이 터무니없이 나가라 할 일은 없을 것 같더라고요. 이런 저런 일로 지쳐 있었고, 일에 대한 열정도 사는 일에 치여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 루이에게 떠나자고 했어요.”

그들은 버스를 타고 카자흐스탄, 러시아, 터키 등을 거쳐 서울에서 파리로 내달렸다. 그 기간이 무려 318일이다. 자신들의 삶을 내걸고 이방의 나라들과 사람들을 만나는 동안 이들 부부는 여행 이상의 체험을 했다. 밤새 버스를 두드리며 '돈'을 요구하는 지역주민과의 실랑이도 있었고, 사막에서 버스가 고장난 일도 있었다. 이렇게 4만 킬로미터를 주행했으니 길 위에서 일어났던, 혹은 받았던 상처와 기쁨들이 얼마나 다종다양했는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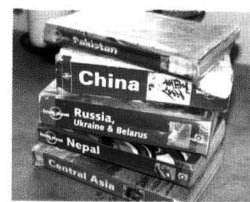
“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가장 많이 바뀐 건 가족에 대한 애정이 더 굳어졌다는 거예요. 가기 전에는 과연 루이랑 한평생을 살 수 있을까 싶었는데, 다녀오고 나서 더 사랑이 깊어진 것 같아요. 전 이 여행을 다녀오기 전에는 루이와의 갈등이 문화 차이에서 오는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행을 하다보니 그게 아니라 성격 차이 때문에 힘든 거더라고요. “이렇게 ‘화성에서 온 남자와 금성에서 온 여자’가 만나 서로를 이해하기까지 13년, 그리고 (금성에서 온 여자 입장에서 보자면) 시택까지 4만 킬로미터의 여행이 필요했다.”

“여행을 시작하고 얼마 동안은 아주 열심히 여행일지를 썼어요. 여행일지를 쓰고 나면 아침에 배터리가 방전되어 시동이 안 걸릴 때도 있었죠. 그러다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는 상황까지 일어나다 보니 여행일지를 매일매일 쓰는 게 어렵더군요.” 추위와 배고픔, 그리고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면서 다녀온 여행(?)도 이들에겐 떠나고 싶은 욕구를 잠재우는 처방이 되지는 못했나 보다.

“5월쯤에는 알래스카를 경유해 아르헨티나로 내려가는 여행을 계획중이에요. 2~3년 정도로 잡고 있는데... 서울에서 파리 다녀오는 것도 11개월 정도 걸렸는데 너무 짧았거든요. 한 곳에 2~3주 정도씩 머무르면서 그곳 사람들과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지려고요.”

지난 여행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알래스카를 경유해 아메리카 대륙을 횡단하고자 하는 그들의 새로운 계획은, 이들에게 유목민의 피가 흐르지 않고서야 가능하지 않은 일이다. 이들 21세기 신유목민들은 양과 말 대신 개를 태운 버스를 끌고 이제 또 떠날 차비를 한다. 떠나고 돌아오고, 그들에겐 이것이 삶이다. **출판**

취재 양선희 기자 | 사진 박신우 기자



혹시나

떠나고 싶은 열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루이와 미애가 주는 조언

“저희들처럼 버스로 여행을 하고 싶은 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건 운전은 물론이지만, 버스 자체나 자동차 자체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할 것 같아요. 고장이 난다거나 할 때 순발력 있게 대처하려면 기계 자체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하거든요. 그리고 《론리 플래닛》이라는 책이 큰 도움이 되었어요. 아주 작은 지역에 대한 정보도 정확하더라고요.” 물론 캠핑카와 《론리 플래닛》만 있다고 이들처럼 겁 없이 일을 저지러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말이다.